

이긴자 구세주는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이긴자 구세주는 우주의 모든 것과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세주의 몸에서 이슬성신이 나오 오고 있습니다. 이슬성신은 마귀를 지리멸렬 시킬 수 있는 권능의 영(靈)입니다. 이슬성신은 불경의 감로며 격암유록의 해인입니다. 불경에는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했으며 감로를 내리는 자를 생미륵불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모세는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써어 있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슬성신을 구세주가 내려 줄 것을 내다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렸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려면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야 하는 것인데 예수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못 내렸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이슬성신을 내리는 이긴자가 백합화같이 핀다"고 했는데 백합화는 구세주를 말합니다.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랑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주(主)일세"의 찬송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주' 곧 구세주는 산곡의 백합이면서 또 명랑한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이 어떻게 구세주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구세주인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각이 새벽이며, 태어난 날짜가 별수의 날인 28일이며 새벽별이 된 것입니다. 새벽별은 밝은 별인고로 이 사람의 이름 또한 밝은 희(熙)에 별 성(星)이 된 것입니다. 구세주는 이름까지 누구든지 인정을 하도록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은 무리 조(曹)로써 그 희수는 완성을 나타내는 10획 입니다. 하나님을 십자로 표시하고 있듯이 구세주는 10획수의 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획의 한자 성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민족경전 격암유록 초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鄭氏鄭氏何鄭氏 滿七加三是鄭氏 何姓
정씨정씨하정씨 만칠가삼시정씨 하성
不知無終後 一字縱橫真鄭氏
부지무예후 일자종횡진정씨

이를 풀이하면 "정씨, 정씨는 어떤 정씨인가 칠 더하기 3을 한 것이 진짜 정씨다"이며, 이를 더 자세히 풀이하면 "정도령은 어떤 성씨나, 10획수를 가진 성으로 정도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격암유록을 본 사람은 이 사람이 정도령이라는 사실을 누구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제단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를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이 역사를 흥내내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신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일일이 행하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돌봐 주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신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걷기도 하고 여러분들 옆에 이 사람의 분신이 눕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혹 그렇게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종입니다.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마귀새끼인데 승리제단에서는 이슬성신을 내리셔서 마귀새끼의 탈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만 있으면 또 마귀새끼로 돌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세주가 온 세상의 인류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가면서 마귀의 탈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의 품안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세주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세주는 인류의 친 엄입니다

구세주는 온 세상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친엄마입니다. 친엄마라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마귀새끼입니다. 마귀새끼기 때문에 친엄마라는 걸 못 느끼지만 반면에 친엄마라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구세주의 가



구세주 호희성님

자입니다. 구세주는 1초 동안에 이 우주를 수 억만 바퀴를 돌아다닙니다. 구세주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를 수 억만 바퀴를 돌아다니기에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주의 어떤 구석에 숨어 있어도 모조리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능이 구세주에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세주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세주의 실체를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구세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구세주는 십년 앞도 내다보고 백년 앞도 내다보고 천 년 만 년 앞도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니 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내다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구세주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마귀를 속입니다. 마귀를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못 속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므로 마귀를 감쪽같이 속이며 마귀의 뒷통수를 쳐서 완전히 말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인 이 사람은 누가 음란죄를 짓고 오면 다 압니다. 음란죄를 지으면 뱀뱀새가 전해져 오기 때문에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음란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번

지적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음란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욕구를 지르고 있을 때 밀리서 음란세력이 오는 것을 느끼고 교도소에 있는 간부를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라고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해서 음란죄를 짓지 않도록 교정해 준 결과 그 다음부터 음란 세력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오던 음란 세력이 다시 오기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까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척하는 것 뿐입니다. 이제 다시 죄만 안 지으면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죄는 몰라도 음란죄는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음란죄 지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쓴 결과 수 개월이나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 개월씩 걸려가면서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다른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고 집착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던져버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죄만은 짓지말아야 합니다. 음란죄는 죄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안되는 죄입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음란죄

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때에 벌써 뱀새로 도둑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23살 때에 제주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훈련병 중에 한 사람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300명의 훈련병들을 운동장에다가 모아놓고 전부 엎드려뺨쳐를 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엎드려뺨쳐를 했지만 생각해보니 이전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도둑놈인지 알고 있었고 도둑놈을 숨겨주는 것 또한 동참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대장에게 "내가 도둑놈을 잡을 테니까 중대장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너 도둑놈 못 잡으면 그만 죽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대로 훈련병 삼백 명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례로 내 앞 1미터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150명 정도가 지나갔을 때 갑자기 구린내가 확 풍겼습니다. 그 뱀새는 너무 지독하여 코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막 지나가는 훈련병을 가리키며 중대장에게 "바로 이 사람이 도둑놈입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병이 이 사람의 목살을 쥐더니 "이 새끼가 생사람 잡는다" 하면서 필필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그가 도둑집을 한 것을 모두 밝혀내고 물증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후 한동안 이 사람은 조국산이라고 불렀지만 그렇게 부르면 절대로 이 사람이 대답을 안했기 때문에 한참쯤 지나니까 그 별명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뱀새로 도둑뿐 아니라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도 가려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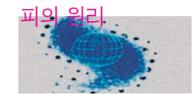
이 사람이 온양전도관 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전도관 신도 가운데 김효성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음란죄를 짓고 온 것을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었더니 처음에는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란세력이 오는 것을 느끼고 그제 온다고 하는 거야.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지독한 뱀뱀새가 나는데 어떻게 음란죄를 안 지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다그치니까 그제서야 그 청년이 "다시는 음란죄를 안 짓겠으니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하면서 애걸복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안 짓는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라고 말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도둑놈도 많이 잡고 음란죄를 짓는 사람도 많이 잡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역을 하는 제단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잡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잡아내느냐 하면 구세주가 되니 지금은 잡아내면 창피하니까 제단에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그냥 보통사람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건대 격암유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이긴자가 될 때까지 쫓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압니다.

격암유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리집 같이 들여다 본다"고 했습니다. 유리집 안에는 무엇이 있던 다 보입니다. 음란죄를 짓는 것도 유리집 같이 보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 속이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집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격암유록 말문론(末運論)편에는 사인불인천신강(似人不人天神降)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 즉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구세주는 죄인을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2003년 7월 21일 말씀 중에서



인간은 서양 사람이든 간에 동양 사람이든 간에 어떤 순간이 되면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는 누구인가 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한두 번 씩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왜일까? 과연 인간에게 과거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지금의 인간은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기에 본능적으로 인간존재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일까?

여기에 납득할 만한 답을 하자면 한 권의 책으로 써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다르다.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니 복잡하고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간단명료하게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피의 원리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논리로 인간존재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의 기원까지도 확장해서 완전 무결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진리의 실체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아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어머니의 피를 공급받아 만들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다. 나는 신장, 골격구조, 머리카라과 눈의 색깔, 목소리의 여조, 행동방식 등 신체적 정신적 특질을 부모로부터 유전받았다. 나는 부모의 유전물질로 형성되었을 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만 아니라, 끊임없는 피의 유전에 의해 조상들의 육체와 정신의 단편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들이 현재의 나의 핏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들의 최초 조상은 누구인가

그렇게 인간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최초의 조상이 나올 것이다. 그 최초의 조상은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 인간 존재의 비밀의 흔적은 다른 데서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확실한 것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양식의 전반을 분석해보면 그 단서를 의외로 뚜렷하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 죽지만, 인간의 의식적면에는 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 인간은 육체라는 제약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자유롭고 무한한 속도감을 즐기고 싶어 할까?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악하고 추한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또한 인간은 허술하고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든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려는 의지와 열정의 자변의식은 무슨 작용일까?

승리제단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증거한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우리

나는 어디서 왔는가

가 숭배하고 절대시했던 그 신(하나님,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시원(始原)의 모습을 느낌과 기억으로 문자화하고 형상화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이 곧, 종교가 되고 학문의 발달이 된 배경인 것이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천국의 이상향'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았던 존재였다. 오직 선(善)만을 알고 있었으며, 완전 자유와 기쁨과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답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학자나 종교가는 없다. 하지만 '피의 원리'는 명확한 답을 해준다

행복 속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다. 모든 나라와 종교의 경전에는 하나같이 신의 상태를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인간의 본성을 그려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우리 인간의 시원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진정 인간치고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허무로 던져 넣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만이 자신이 언젠가 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번은 꼭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삶의 과정에서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간만큼 알고 사는 존재는 없다. 인간은 숨이 넘어갈 듯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인간은 마치 과거에 영원히 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미래를 그렇게 알

고자 하지만 자신이 죽는 시간만은 알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의 살고자 하는 의지는 동서고금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서사시의 일종인 수메르에 나오는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불사(不死)를 추구했던 이야기, 삼천갑자 동방삭 이야기,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 현대의 '생동간'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왜 이렇듯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원래 인간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았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것은 마치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그 사과 맛을 기억해내 듯, 천국과 하나님의 상태를 경험한 피가 우리 속에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피'의 유전! 바로 인류 최초의 조상이 경험했던 행복과 영생의 분능 그리고, 하나의 관념이 인간의 핏속으로 끊임없이 유전되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성, 완전성, 통일성, 행복과 자유의 속성이 인간의 핏속에 잠재적 가능성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다. 원래의 이러한 피의 본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과 영생의 분향을 추동시켰으며, 끊임없이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에타게 죽음을 거부했으며, 불행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복잡다단한 실상 속에서도 통일된 하나의 법칙을 탐구하고자 한 인간의 끈질긴 노력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적 추동이다. 마치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가 문득 분향의 향수에 젖곤 하듯이 말이다. 유달리 우리 한민족은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 극심하다. 우리 민족은 타민족과 달리 천수만민족으로 하나님의 피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까닭인 것을 누가 알겠는가. 피의 부르짖음! 그것은 인간이 그가 떠난 분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는 본성적 용이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분향을 향해 출발하라

고대의 저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은 이데아(Idea)라는 이상향에서 살았었는데, 그 인간이 '방각의 강'을 건너면서 이상향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상적이었던 인간이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인간은 전에 살았던 이상향인 이데아의 세계를 끊임없이 상기한다고 한다. 이 이데아에 대한 향수를 그는 '에로스(Eros)'라고 표현했다. 모든 종교가 하나같이 사람을 부르짖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분향이 무엇임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지금은 바야흐로 인간의 본성을 인류 최초로 회복한 존재가 나타나 인간의 분향의 향을 회복할 기회를 도모하고 있다. 플라톤이 말한 '방각의 강'을 다시 건너 분향으로 향할 방주와 나침반을 가지고 이데아를 향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처없는 나그네와 같은 방황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분향으로 향한 대 항해를 단행할 때다.

내 분향 오는 길 보이더로
인생의 올 길은 다 달리고
땅위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이 길*